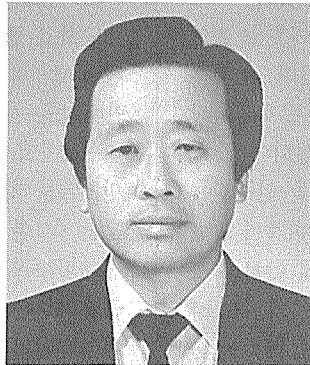


북방자원개발협력현황 및 정책방향



曹基鳳

〈동력자원부 해외자원과장〉

1. 추진배경

최근 국제정세는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동서화해 무드가 조성되어 가고 국내적으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국민적 여망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방외교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겠다는 의지로 지난 '88년 "7.7 특별선언"을 통하여 북방정책을 천명하고 北方국가와의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지난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여 헝가리, 폴란드, 소련등 동구제국을 비롯하여 몽고등 북방국가와의 국교정상화를 이루는 한편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교류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여건변화속에서 정부에서는 北方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슬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간 직면하고 있는 경제의 상호보완구조를 감안, 북방국가를 우리의 상품수출시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북방국가들이 희망하고 있는 자원공동개발에 참여하여 소요자원을 장기·안정적으로 도입한다는

전략하에 북방자원개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북방국가와 자원개발협력을 추진해온 과정을 살펴보면, 소련과는 지난 '90년 8월과 '91년 1월 2차례에 걸쳐 정부대표단회의에서, 자원교역 및 시베리아 자원개발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90년 8월과 '91년 3월에는 우리의 민간 자원조사단이 소련을 방문하여 에너지·자원분야의 상호 협력가능성을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석유, 가스, 석탄 등 12개 사업을 중심으로 자원개발협력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와 아울러 우리와 거리가 가깝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中國, 베트남, 몽고등에도 자원조사단을 파견, 관계개선 노력과 함께 에너지·자원분야의 협력증진을 위해 민간기업과 정부의 공동노력에 자원교역 및 자원개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北方국가와의 자원개발협력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북방자원개발협력현황

북방국가와의 자원개발협력 현황을 우선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자원교역의 경우 '88년을 기점으로 하여 유연탄, 석유등 에너지·자원을 중심으로 급격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원공동개발은 북방권 국가내 개발여건의 미성숙으로 현재 개발타당성 검토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와 북방국가의 꾸준한 협상노력과 경제구조의 상호보완관계를 감안할때 소규모사업에서부터 조만간 개발성고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에너지·자원교역

먼저 에너지·자원교역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액면에서 '88년 약 3억 3천만달러규모를 도입하였고, '89년 4억 2천만달러, '90년 4억 8천만달러 규모로 연평균 약 2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대북방 에너지·자원 도입은 '90년 기준으로 볼때 국내 총 에너지·자원 도입액의 약 4.3%에 해당되며 향후 북방국가와의 도입비중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방국가와의 자원교역 특징을 살펴보면 초기에

〈표-1〉 對북방 에너지·자원도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1988		1989		1990		1991(1-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유연탄 (천톤)	3,681	142	3,216	161	3,852	184	1,752	83.6
무연탄 (천톤)	1,534	68	1,268	60	1,083	49	702	31.9
석유 (천배럴)	5,309	76	9,847	152	10,293	220	3,325	53.9
농축우라늄 (톤)	-	-	-	-	40	23	-	-
기타광물		44		51		N.A		N.A
합		330		424		476		169

는 홍콩등을 통한 간접교역에서 이제는 직교역 형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교역대상품목은 석탄(유연탄 및 무연탄), 석유, 농축우라늄 등 에너지·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도입광종의 편중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북방국가와의 자원교역을 국가별로 보면 '90년

기준으로 中國이 354백만달러(74%), 소련 110백만달러(23%), 베트남 12백만달러(3%)순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中國으로부터의 도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中國에 편중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2〉 북방국가별 에너지·자원 도입현황('90년기준)

(단위 : 백만달러)

	中國	소련	베트남	합
금액 (비율)	354 (74%)	110 (23%)	12 (3%)	476(100%)
주요광종	석탄(유·무연탄) 원유	석탄(유·무연탄) 석유제품, 농축우라늄	무연탄	

(2) 자원공동개발

그동안 정부의 북방정책추진에 힘입어 우리 민간기업들의 對북방 자원개발진출움직임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 정치·경제체제의 혼란등 개발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현재 에너지·광물자원개발을 위해 본격

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은 없으며 다만 유망사업을 중심으로 개발타당성 조사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방국가와의 자원공동개발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첫째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소련과의 자원개발은 지난 제2차 한·소 정부대표단회의에서 공동

〈표-3〉 對북방국가와의 자원공동개발사업 현황

소 련	사 업 명	위 치	추 진 기 업	추 진 현 황
소 련	○ 사할린 육상 유전개발	사할린 동북 오하 지역	동원탄좌	합작기업 설립 추진중 입찰참여중
	○ 사할린 해상 석유·가스개발	사할린 동북해상	현대자원개발, 팜코	공동개발 의향서 교환
	○ 야쿠트 천연가스 개발	야쿠츠크시 부근	현대자원개발	"
	○ 야쿠트 엘긴스크 유연탄개발	네룬그리시 부근	"	"
	○ 치타주 우다칸 동광개발	치타주 북부	럭키금성	'91년 광산조사 실시예정 협의중
	○ 아친스크 정유공장 증설	그라스노야르스크 지방	鮮京, 럭키금성	"
	○ 앙가라스크 정유공장 증설	이르쿠츠크주 중부	"	"
	○ 소루후트 정유공장 건설	서부시베리아 소루후트시	"	"
	○ 칼믹 석유·가스 개발	카스피해 북서쪽	現代자원개발	'91.5 합작투자 합의 입찰참여 검토중
	○ 아제리 유전개발	아제르바이잔 바쿠시 부근	럭키금성	합작개발계약체결 (사업계획작성중)
	○ 프라보우르미 주석광 개발	하바로프스크주 슬룩시 부근	現代자원개발, 삼성, 대우, 동부산업 등	사업타당성검토중
	○ 우르갈 유연탄 광 개발	하바로프스크주 체크도민시 부근	現代자원개발, 대우	
中 國	○ 방우구 연·아연광 개발	길림성 이동현	영풍광업	'91.5 탐광시추 계약체결(탐광시추 착수중)
	○ 이가구 연·아연광 개발	감숙성 성현	"	"
베 트 남	○ 캄란만 규사광 개발	캄란만 나트랑 부근	두산산업	합작개발 의향서 교환
	○ 빅베어 유전개발	사이공 남동해상	쌍용, 대우, 유개공 등 8개기업	입찰참여검토중

개발하기로 합의한 7개사업과 민간기업 및 민관 자원조사단이 발굴하여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5개사업을 포함, 12개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들 12개사업은 석유, 천연가스개발이 5개사업, 유연탄개발이 2개사업, 동·주석등 일반광개발이 2개사업 그리고 정유공장 신·증설사업이 3개사업이

며, 이들 사업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콘소시엄 또는 외국 기업과 국제 콘소시엄을 구성, 공동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프라보우르미 주석광과 사할린 육상유전개발 등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한·소 자원개발협력을 조만간 가시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아래 우리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中國과의 자원공동개발은 中國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자원부국인 점을 감안, 장래 자원개발협력을 확대하고자 우리의 민간기업들이 활발히 중국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한국의 영풍광업(주)와 대한광업진흥공사는 中國 길림성 및 감숙성 지역에 대해 광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영풍광업(주)가 이 지역내 2개의 연·아연 광산에 대한 합작개발을 위해 탐사계약을 체결, 금년 7월 북방권 국가로서는 최초로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8월부터 탐사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90년 10월 석유개발과 관련 韓中 양국은 中國 上海에서 제1차 韓中 석유개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서해 대륙붕개발에 대한 탐사 및 기술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공동개발연구에 합의하는 등 韓中 자원개발협력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셋째 풍부한 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베트남과의 자원개발은 그동안 서방제국의 對 베트남 경제제재조치등 외적요인에 의해 자원개발협력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환경이 對 베트남진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대베트남 자원개발 진출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두산산업은 베트남 캄란만지역 규사광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석유개발공사와 국내 관련 7개 기업은 콘소시엄을 구성, 베트남측이 제의한 빅베어(Big Bear) 광구의 유전개발사업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3. 향후추진계획 및 전략

정부는 국내 자원수급상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자원개발협력의 다변화를 통한 자원의 장기·안정적, 경제적 확보를 자원정책의 기본목표로 하여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 이점이 있는 북방국가와의 자원개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북방권 국가내 외환부족 및 자원개발여건의 미성숙을 고려하여 우선 단기적으로는 북방국가와의 자원교역을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북방국가내 투자위험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자원개발협력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에너지·자원교역

에너지·자원교역의 추진에 있어 먼저 북방국가와의 자원의교활동을 강화하여 그간의 간접교역방식에 의한 자원도입을 가급적 줄여나가고 점차 직교역방식에 의한 도입물량을 증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 북방국가와의 자원교역이 석탄, 석유, 우라늄 등 에너지·자원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 도입조건이 유리한 에너지·자원의 도입물량을 계속 증대해 나가는 한편 연·아연·동·알루미늄 등 일반광물의 도입물량도 증대하므로써 도입광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우리 민간기업들이 북방국가의 기업들과 자원교역을 위한 합작기업을 설립토록 유도하는 한편 구매사절단을 적기에 파견하여 상호 거래선과 교역대상자원을 확보하여 직교역에 의한 자원도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자원공동개발

북방국가와의 자원공동개발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북방국가내 자원개발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점을 감안, 충분한 개발타당성 검토를 거쳐 국내 자원 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방국가와의 자원개발 추진전략중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방국가와의 자원개발추진은 사업의규모 개발여건 등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우선추진사업 및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즉, 단기간내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조만간 북방국가와의 자원개발을 가시화 시켜 나가고 개발여건이 미성숙되어 투자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대규모사업은 충분한 개발타당성 검토를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되 투자위험분산을 위해 외국기업과 공동진출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북방국가에의 자원개발진출은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간 콘소시엄 형태의 진출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사업검토 초기단계 부터 허가과정에 이르기까지 국내 민간기업간 콘소시엄 구성을 장려해 나가고 상호 정보교환촉진 및 과당경쟁방지를 위하여 『복방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우리 민간기업이 투자위험분산을 통한 합리적인 대북방 진출방안을 모색토록 할 계획이다.

셋째 정부는 북방국가와의 자원개발협력을 촉진하여 자원개발진출 지역을 다변화 한다는 방침으로 개발자금 지원책을 강구하고 기술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석유사업기금을 활용한 지원규모도 늘려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석유개발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등 정부기관이 보유한 전문기술진을 활용, 민간기업의 기술진과 공동으로 유망사업에 대하여 전문조사단을 파견하는등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 북방권국가와의 자원의외교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련, 中國, 베트남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북방국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원조사단을 파견, 자원개발협력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추진중인 『한·소 자원협력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하는 한편 中國, 베트남 등과도 국교관계정상화 진전에 따라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게 자원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북방국가중 유일하게 소련에만 파견되어 있는 자원협력관을 점차적으로 타북방국가에도 파견하여 신속하게 자료정보를 입수, 적기에 현안사항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여 우리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4. 향후전망

소련, 中國, 베트남등 북방권 국가들은 경제개혁과정에 소요되는 자본을 조달기 위하여 풍부한 부족

자원을 활용, 향후에도 자원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함과 아울러 자원공동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자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실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북방권 국가와의 에너지·자원협력은 더욱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북방권국가와의 에너지·자원협력은 먼저 자원교역부문이 증가하고 자원공동개발의 성과는 그 특성상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자원공동개발에는 무엇보다도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대북방 자원개발에 따르는 투자위험성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원공동개발 또한 북방권 국가내 투자여건의 미성숙을 고려할때 우선 투자위험이 적은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석유·가스, 유연탄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은 향후 국제정세 투자여건의 변화추세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어 그 성과는 서서히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자원수급현황을 고려할때 해외자원개발에 의한 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그간의 폐쇄정책으로 선진국의 선점이 비교적 적은 북방권 국가들은 향후 우리의 해외자원개발대상 최적지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소련의 보수세력에 의한 쿠데타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정치·경제체제의 변혁기에 있을 뿐 아니라 인프라시설의 미비등 여전히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대규모 자본 및 장기의 시일이 소요되는 자원개발 진출에는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북방권 국가와의 자원공동개발은 북방국가내 개발여건을 충분히 고려함을 물론 국내 경제정책 및 자원수급계획도 고려, 장기적인 구도하에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너도나도 사전점검 재해없는 우리고장